

임상병리연구실

한국바이엘화학(주)
동물의약연구소

□ 취재/함경숙 기자

한 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한국 축산업 발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회사.

우수한 동물약품을 사양가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열중하는 우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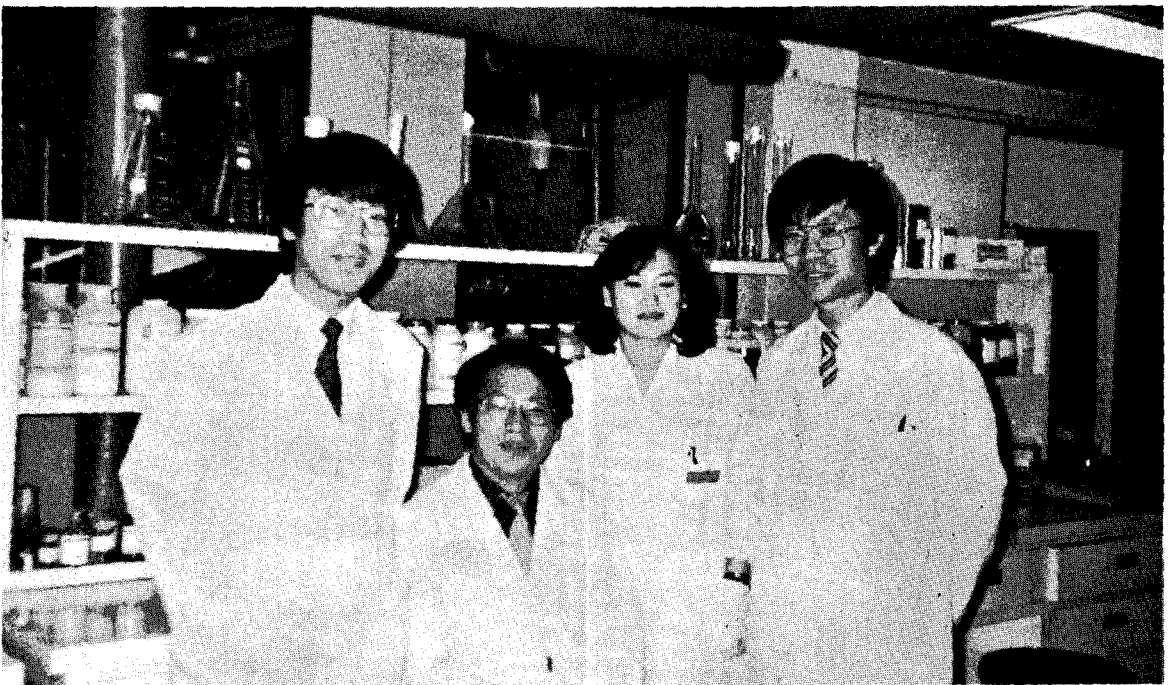
그러나 그 명성은 결코 하루 이틀에 쌓아진 것은 아니다.

자체 내에 동물의학연구소를 설립, 품질관리연구실, 백신관리연

구실, 신제품개발연구실, 임상병리연구실 등 연구업무를 분담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양축가에게 공급하며 철저한 서비스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핵심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얻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연구실은 사양가들과 밀착되어 질병관리 지도 및 고객 가축질병 진단서비스 등 사양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철저한 사전검사와 정확한 진단, 완벽한 서비스 등 삼위일체가 제1주의 창출의 원동력이죠”





▲이창구 소장

뒷처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창구 동물위생연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재길, 박경운, 탄양운, 김병희, 손경희.

이들은 임상병리연구실을 이끌어 가는 오형제로, 각양각성(姓)인 만큼 그 끼 또한 다르다.

동물위생연구소 이창구 소장은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가축위생연구소장, 88서울올림픽에서 승마경기본부 수의부장 등을 역임한 국가정책의 입안(立案)에도 관여하는 우리나라 가축위생 분야의 원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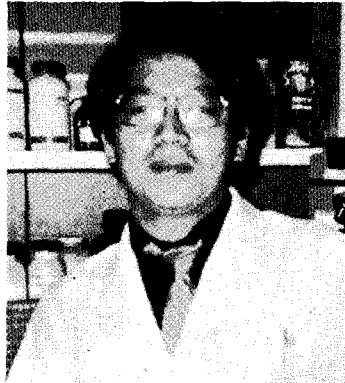
철저한 사전검사로 확실하고 우수한 제품만을 사육가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의 축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우리의 축산업은 GNP 성장가능성이 있어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동물약품 분야도 성장,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한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은 '나만

잘 살겠다'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 공조·공존의 분위기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지론이다.

항상 솔직담백하며 박애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이 소장은 세명의 가족이 하루에 계란 5개씩은 소비,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명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재길 차장.

두툼한 안경에서 엿보이는 전형적인 학구파의 한사람. 매사에 의



▲예재길 차장

욕적인 그의 세심하고 예리한 관찰력은 '살아있는 현미경'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는데 주위의 평.

그의 야릇한 웃음과 근엄한 태도는 뭔가를 깊이 숨긴 것이 있는 듯해 보이고 현재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처리가 논리정연한데 바둑을 취미로 갖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경운.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주로 담

당하는 업무는 백신품질관리. 의욕이 강하게 보이는 그의 입모양이 외유내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유난히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무던한 사나이로 Field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영업부 직원들이 의뢰하는 필요(실험실적 검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상병리실이 되도록 소망하며 오늘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탄양운.

국가검정을 받기 전이나 백신자가검정을 위해 설립된 소래의 실험농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각종 가축의 채혈도사라 평가될 정도로 달인(達人)의 경지(?)에까지 와 있다.

이처럼 보통사람들이 약간의 경계심을 갖게 하는 그의 업무에 비해 그를 처음 대하면 찰리 채플린



▲박경운

이 연상될 정도로 유머러스해서
실험실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완충적 작용을 특특히 해내는 능
력있는 사나이.

김병희.

나이에 걸맞은 애늬은이(?).

충청도 양반이라 유독 전원적인
분위기를 사랑한다.

축산의 선진화를 위해, 질병퇴
치를 위해 바이엘과 인연을 맺었
다는 그는 세포조직 배양, 닭혈청
에 대한 ND, EDS 항체가 측정
과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 진단
및 돼지에 대한 혈청항체가를 측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양축
농민에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었
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보
람된 일이라고.

특히 인간이 가축에게 관심을
갖고 정성껏 돌봐주면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쉼어가고 있다.

손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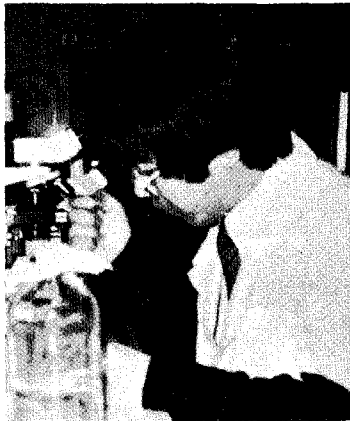
임상병리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손경희

축산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생
활해 오고 있는데 실험실 살림을
꾸려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물
(?)로 테이블 구석 서랍에 들어
있는 먼지양까지 훤히 알고 있을
정도로 야무진 성격.

또한 영업부 직원들이 의심되는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가검물이나
혈청 등의 검사를 의뢰하면 병성
감성을 하여 약제추천 또는 동정
시험, 원인균 분리 등을 통해 질



▲김병희

병을 확진할 수 있는데 매년 검사
의뢰건수가 2배 이상 증가, 활성화
되는 추세라고.

임상병리사라는 다소 생소한 느
낌을 주는 직업을 갖고 다른 부원
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효
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여성 특유의
재질을 첨가하여 그 능력을 발휘
하고 있는 손경희.

임상병리연구실의 대장(?)답
게 그가 맡은 몫도 큼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체내에

동물의약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

농장에서 양축가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함과 아울러

철저한 각종 질병의

사전검사와 완벽한 서비스 및

정확한 진단이

삼위일체가 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바이엘화학은

동물약품업계의 제1인자로

당당히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농장에서 양축가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철저한 사전검사와 완
벽한 서비스 그리고 정확한 진단
이 삼위일체가 되어 작용하기 때
문에 오늘의 한국바이엘화학은 동
물약품 업계의 제1인자로 당당히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임
할 때 '최고'라는 단어가 가까이
다가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양11